



'마라의 죽음'을 패러디한 '티앙'은 빅 무니즈와 '카타도르'들이 재활용 쓰레기로 작업했다.

작곡가 신동민 '10년만의 외출'

오늘 광주문예회관에서 발표회

곡 10년만의 발표회다. 오랜만의 나들이인 셈이다.

제 5회 신동민 예술가곡 작곡발표회 '오래된 외출'이 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지난 2004년에 이어 마련한 이번 발표회에서 남부대 신동민(광주작곡가회 회장) 교수의 신작 예술가곡 12곡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을 노래하는 이들은 1974년 창단된 음악 전문 연주단체 연우회 회원들이다. 소프라노 이승희·박경숙, 테너 최재훈·임



영빈, 베이스 김일웅, 바리톤 김남경씨가 노래하며 피아노 반주는 조선미씨, 트럼펫은 장대원씨가 맡는다. 신교수는 광주오페라단 창작오페라 '배비장전',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뮤지컬 '우리들의축제'를 발표했으며 지난 2008년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개최된 합창올림픽에서 '까투리, 까투리'로 그랑프리를 수상한 바 있다. 문의 010-3611-739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28회 한국무용제전 글로벌 아트 춤축제

김미숙 하나무용단 '아름답거나...' 우수상

제28회 한국무용제전 글로벌 아트 춤축제에서 김미숙 하나무용단의 '아름답거나 혹은 슬픈...'이 우수작품상을 받았다.

(사)한국춤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난 29일부터 6일까지 서울 아르크 대극장에서 열렸으며 13개 단체 중 지방 무용단으로는 유일하게 김미숙 하나무용단이 초청받았다.

김미숙 대표가 안무를 맡은 '아름답거나 혹은 슬픈...'은 열심히 꿈을 좇아 달리지 않는 성취의 희열과 함께 무언가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현대인의 모습을 아름답고 슬픈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로 풀어낸 작품이다.

16회 전국무용제에서 '회소'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미숙 하나무용단은 지난 2011년 '오월 광주'를 소재로 한 '그해 오월'을 공연하며 처음 한국무용제전에 입성한 이후



한국무용제전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김미숙 하나무용단 대표와 무용수 배강원.

'푸른 가배', '다시 한번 놀아볼까 친구' 등을 무대에 올렸다.

한국무용제전은 지난해부터 참가작을 대상으로 우수 작품상을 선정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쓰레기 '희망'이 되었다

놓치면 아까운 다큐멘터리 '웨이스트 랜드'

브라질 작가 빅 무니즈, 매립지 사람들과 협업 쓰레기로 생계 유지하던 '빈민들'의 작은 변화 "예술은 삶을 바꾸는 힘 ... 변하는 건 각자의 몫"

1793년 7월 13일 프랑스 '인민의 벗'이었던 혁명가 장 폴 마라가 옥조에서 살해당한다. 혁명 동지 다비드는 이 모습을 그림으로 옮겼다. 서양미술사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히는 다비드의 '마라의 죽음'이다.

2014년 4월 5일 광주극장 스크린에서 또 다른 '마라의 죽음'을 만났다. 작품의 주인공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줍는 티앙. 작품의 재료는 그와 2500명 조합원들이 주운 온갖 쓰레기다.

다큐멘터리 '웨이스트 랜드'(Waste Land)는 쓰레기 더미에서 빈 예술품, 쓰레기로 만든 희망을 목도하는 자라다. 그리고 예술이 삶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지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하다.

다큐 감독 루시 위커의 카메라는 브라질 빈민가 출신으로 뉴욕에서 활동중인 세계적인 사진작가 빅 무니즈의 작업을 따라간다. 그가 찾은 곳은 세계 최대 규모 쓰레기 매립지 자르담 그라마초. '생명이 위험할 수 있음'이라는 팻말이 붙은 이곳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하루 7천에 이른다. 이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매일 헤집고 다니는 이들은 재활용 쓰레기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카타도르'다.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되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에서 그들은 정직한 노동으로 살아간다는 자부심과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꿈을 함께 꾸며 삶을 이어간다.

'예술이 사람을 바꾸는 경험을 선사하고 싶었던' 빅 무니즈는 2년간 머물며 재활용 쓰레기를 재료로 삼아 '카타도르의 초상'이 담긴 '쓰레기로 만든 작품'(Picture of Garbage)'을 완성한다. 이 작품들은 런던 경매장에서 판매되는 등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다.

영화의 전반부에서는 모델이 되는 각 인물의 스토리를 들려준다. 카타도르의 정신적 지주이자 시인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노동의 숭고함을 온몸으로 보여준 발테르, 쓰레기 속에서 재료를 모아 요리를 만드는 모든 이들의 어머니 이르마, 10대 싱클맘으로 성매매와 마약을 하지 않는 자신에게 당당한 두 아이의 엄마 수엘렌, 쓰레기에서 모은 책으로 도서관을 만들 꿈을 꾸는 쥘비, 그리고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젊은 지도자 티앙까지.



'이르마' 작품을 제작한 후 포즈를 취한 사람들.

쓰레기가 예술이 된다는 것에, 자신들이 작품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에 의아심을 갖던 그들은 작품을 제작해가면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 묻어두었던 꿈과 희망을 찾았다. 누군가 버리고 간 인형, 낡은 킬 테이프, 페트병, 병뚜껑 등 온갖 재활용 쓰레기들이 그들을 찍은 사진과 어우러져 '작품'으로 거듭나는 모습은 경이롭다. 그 변화의 과정을 지켜보는 내내 가슴이 울컥해지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많다.

영화에는 유머와 낙천주의가 흐른다. 현대 미술이 뭐라고 생각했느냐는 빅 무니즈의 말에 "쓰레기"라고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답하는 티앙의 모습은 웅얼거리면서도 유쾌하다. "현대미술은 이해도 안 가고 의미도 없다. 예술엔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일정 정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교만이 없는 점도 이 영화의 인상적인 부분이다. 영화 속에서 예술가들이 겪는 고민은 '현장'으로 들어간 우리 예술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다. 작가와 제작자는 불만 지르고 떠나는 것, 단발 작업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 작품 후 그들의 상실감 등

에 대해 격론을 벌인다. 그러면서 다른 현실을 봐야 생각의 발상도 바뀐다. 변화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나눈다. 결국 선택은 그들의 몫이었고, 프로젝트가 끝난 후 쓰레기장으로 돌아간 이르마, 쓰레기장에 다시 돌아가지 않은 이르마도 있었다.

"가끔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만 세상은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죠."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야만 삶에 의미가 생겨요. 가치도 있고요." "꿈이 있는 삶이 모든 것을 가진 삶보다 아름답다" 등 영화 속에는 명대사가 가득하다. 특히 낡은 양말을 꺼내 신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다시 쓰레기장으로 향하는 노인 발테르가 전하는 '99와 100의 차이'는 두고 두고 가슴에 남는다.

자르담 그라마초는 2012년에 폐쇄됐다. 영화는 2010년 제작됐다. 늦게 온 감이 있지만 그들의 '현재'를 알 수 있어 공감증이 풀린다. 마지막 자막이 올라가며 흐르는 모비의 음악 'Beautiful'까지 듣고 나오길. 우리 시대 예술가들, 그리고 우리 모두 꼭 봤으면 하는 영화다. 강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점·선·원색 ... 역동하는 풍경

'농원의 화가' 이대원 작품전 광주 신세계갤러리 15일까지

소나기가 화폭에 쏟아지고 있는 것만 같은 빛의 움직임, 리드미컬한 점들의 향연, 붉은색과 푸른색 그리고 노란색 등 원색의 보색 대비. '농원의 화가' 이대원의 작품들은 간략하게 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지난해 '전재국 미술품 컬렉션' 경매에서 최고가인 6억6000만원에 거래되면서 화제를 모았던 이대원 화백의 또 다른 작품들을 15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 화백은 목가적인 자연풍경을 선과 점, 원색을 사용해 불규칙하면서도 화려하게 담아낸 작가다. 그는 이종섭, 박수근, 장욱진과 함께 한국현대미술사를 대표하는 거장으로 작고 직전까지 산과 들, 나무와 연못 등 친숙한 자연풍경을 주로 담았다.

특히 경기도 한 농원 일원에 작업실을 차리고 '농원' 풍경을 많이 그렸는데, 야산과 보리밭 등에 향토적 정서를 담아 그만의 표현기법으로 그려낸 작품들에



농원(2000년 작)

서는 이 화백의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낄 수 있다.

"평범하지만 했던 야트막한 산과 논, 흙, 그리고 나무 하나하나의 무한한 생

명력에 압도당했다"는 이 화백이 현란한 색채로 표현한 그 에너지와 생명력을 만날 수 있는 전시다. 문의 062-360-1630. /김경연기자 kki@kwangju.co.kr

'한책' 투표하세요

전남대, 내달 22일까지

'광주·전남이 읽고 푹 하다'(이하 '광주 푹')를 전개하고 있는 전남대학교는 올해 함께 읽을 책 1권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8일부터 시작한다.

책 선정을 위한 투표는 5월 22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은 '광주 푹 홈페이지(http://ktalk.jnu.ac.kr)'를 통해 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광주지역 공공도서관, 전남대 여수캠퍼스도서관, 전대병원(화동, 화순)과 광주역, 지하철 상무역·남광주역에 비치된 투표용지를 활용해 투표할 수 있다.

한책선정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서는 ▲28(정유정) ▲3분 고전 2(박재희) ▲구분준의 마음을 품은 집(구분준) ▲남편의 서가(신순옥) ▲높고 푸른 사다리(공지영) ▲눈물을 자르는 눈개풀처럼(함민복) ▲무등산(박선홍) ▲쓰레기장이 고귀한 것들의 목록(도정일) ▲여덟 단어(박용현) ▲인생 수업(법륜)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5회 연속 1등맛집 선정
2006년(1기), 2008년(2기), 2010년(3기), 2012년(4기), 2014년(5기)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세미나, 가족모임, 비즈니스 미팅에는 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개령동 율동로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 1등맛집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맞춤형 출장 도시락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카페 보네르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